

지난달 전력피크 때, 원전 최대가동 공급 기여도 23.4%… 7년來 최고치

올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 93.6GW
원전발전량 21.9GW·가동기수 21기
태양광 발전량 2.5GW로 크게 늘어
재생에너지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

지난 여름 전력피크 발생때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해 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해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는 8월 7일 오후
17시, 93.6기가와트(GW)로 역대 여
름철 전력수요 중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
지됐다. 이번 전력피크 때는 지난해보
다 4.6GW 많은 104.3GW의 공급능
력을 확보했다. 원전, 석탄, LNG(액화천
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모두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작년 12월 신한울 1호기가 가
동을 시작한 덕분에 피크 시 원전 발전
량 21.9GW, 가동기수 21기로 모두 역

대 여름철 최고치를 달성했다. 피크기
여도는 23.4%로 2016년(23.6%) 이후
최고다. 이는 LNG 가격이 폭등한 지
난해보다도 높다.

하지만 피크시점의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과 신재생이 전
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
소했다.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해 피크(7월 7
일 17시) 때는 1.0GW에 불과했으나 올
해는 2.5GW로 크게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전력
수급 관리 측면에서 녹록하지 않은 여
건이었다”며 “7월 장마 직후 8월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전력수요가 급증했고,
태풍으로 인한 설비 피해 우려, 9월 초
까지 이어진 이상고온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수요의
변동성도 높아졌다. 2020년 17GW 수
준이던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27GW
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전력수요를 분담하
는 효과가 있으나, 날씨에 따른 변동성
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수급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피크
를 기록한 올해 8월 7일에도 수도권은
고온다습한 가운데 태양광이 밀집한
호남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지기도 했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안정
적 수급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예
측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말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
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각각의 발전원이 가진 특성이 다
양하므로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도출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
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본산 수산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횃집·이자가야, 日 수산물 원산지 속여 판매

수품원, 국내산 거짓표시 업체 발각

일본산 도미와 가리비 등의 수산물
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횃집·이자가
야(일본식 술집) 등이 최근 당국에 적
발됐다.

19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강원 삼척의
A업체(횃집)는 수족관에 보관돼 있는
일본산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
로 속여 판매했다. 수품원은 이 같은 내
용의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사항을 홈
페이지에 고시했다.

강원 삼척의 B업체(횃집) 또한 지난
13일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일본산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C업체(음식점)
는 일본에서 들여온 참돔을 국내산으
로 표시·판매해 오다 11일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구의 D업체(음식점)는
5일 일본산 활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
로 혼합해 표시했다.

서울 강남구의 E업체(이자가야) 또
한 참돔요리를 팔면서 일본산임에도

국내산·일본산으로 나란히 표시해 이
달 1일 단속반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날 경기 수원시 F업체(음식점)
도 마찬가지로 원산지를 국내산·일본
산으로 혼합했다. 이 음식점이 수족관
에 보관 중이던 활참돔은 일본산으로
밝혀졌다.

수품원은 원산지를 혼합해 명기하는
경우(혼동표시)도 거짓표시로 간주하고
있다. 이달 중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위장
된 일본산 활어의 경우, 상당량은 후쿠시
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8월
24일 이후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충남 예산 소재 G업체(수산
업)는 이달 6일 중국에서 들여온 냉장
농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충남 논
산의 H업체(음식점)는 보리굴비 원산
지를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변경한
사실이 5일 드러났다.

방류 개시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구의 I업체(수산업)는 어시
장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국산·북한·러시아로 병기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생명과학·환경 등서 신규직업 156가지 생겨

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등재
초고령사회에 따른 관심 증가 원인

한국고용정보원이 19일 생명과학과
화학, 에너지·환경, 건설, 농림어업 분
야에서 새로 생겨난 직업 156가지를
‘한국직업사전’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신규직업은 고령화에 따른 의
료기술 발전 및 지능정보기술 접목 등
에 따라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후보물질발굴연구원을
비롯해 정밀화학포물레이션연구개발
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유
기재배원, 자립지원전담인력 등이다.
신규직업이란 한국직업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직업으로, 직업세계 변화로 새
롭게 나타나는 신생직업을 포함, 이미
생겨났으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직
업을 가리킨다.

정보원은 “이번에 등재된 신규직업
은 초고령사회로 향해감에 따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했다”며 “의
료기술의 혁신적 발전 및 지능정보기
술 접목, 정부의 정책지원 등의 요인이
상호 연계되면서 직업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개발 투
자 증가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활성화
됐고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 ▲바이오의약품후보물질발굴
연구원 ▲바이오의약품공정개발연구
원 ▲임상데이터매니저 등의 직업이
나타났다.

또 환자보호 및 수도물의 안전한 공
급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환자안전법, 수도법 등 관련
법제도 신설 및 개정에 따라 ▲환자안
전전담인력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

리사 등이 생겨났다.

이 밖에 가파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
자립지원전담인력(청년자립지원 및
금융소비자 권리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도 새로이 이름을 올렸다.

김종진 한국고용정보원 김종진 연구
위원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사물인
터넷,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정보기술
이 생명·건설·농업 등 전 산업에 접목
되는 등 직업세계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행복하고 안
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도 나타나고
있다”며 “진로준비 차원에서 이들 직
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규 등재 직업은 워크넷의 직업진
로 메뉴인 ‘한국직업사전’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노조, 결산결과 공시 시 세액공제 혜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
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10월 1
일 개통)에 오는 11월 30일까지 2022년
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
택이 부여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
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
조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가 대상이다. 또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단위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
제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
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
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
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
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상시 50인
이상) 3만여 개소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
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재예방 우수 건설업체에 경제적 지원

안전보건공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지난 2014년부
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
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
상(100점 만점)을 받은 건설업체에 분
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
적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보
증 발급 시 보증료 5%를 할인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
금보증의 보증료율을 0.1%(포인트) p
감면하는 등의 혜택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날 주택도시보
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
증지원 및 협약기관의 안전보건수준향
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기존에는 산업재해예방활
동 실적평가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돼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심우주’ 출시 첫 날 1600명 판매고

치즈 부산물 유청 활용 제품

농협 축산경제는 범농협 최초 치즈
가공 부산물인 유청을 활용한 전통주
‘심우주’가 출시 하루만에 1600명의 판
매 성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심우주(心牛酒)’는 치즈를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인 유청에 ‘푸드 업사이클
링’이라는 새로운 소비가치를 부여한
농협축산경제 사내벤처반의 첫 번째 제
품이다. 작년 사내벤처 아이템 공모전
에서 1위를 차지한 우주(牛酒)사업에 범
농협 육성지원을 더해 탄생했다.

‘심우주’막걸리는 아스파탐(인공
감미료)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100%
국산 농축산물인 김포금쌀과 임실치
즈 유청을 활용한 농협경제지주의 첫
전통주로 유청의 진한 고소함과 부드
러운 맛이 특징이다. 농협은 유청의
깊고 풍부한 맛을 살렸다는 의미에서
제품명도 ‘심우주’라고 지었다고 설
명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심우주’의 안정적
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판로 개척과 흥
보로 지금의 인기를 이어간다는 계획
이다.

/차상근 기자 skc8472@